

2005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 월 모의 평가
언어 영역 듣기 평가 대본

<1 번> 이제 전화 통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안녕하세요? 갈꿈전자 서비스 센터 기사 한친절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 네.

〈2 번〉 이번에는 미술관에서 두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 그런데 무슨 예술 작품이니?

은 거야. 우리에게 전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람도 표지판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 주고 있지만 저게 예술 작품은 아니잖아.

〈3 번〉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하고, 어려운 상황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토스카니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련의 극복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현악단의 첼로 연주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로 악보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첼로 연주를 포기하였겠지만 토스카니니는 달랐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를 마치고 돌아갈 때 토스카니니는 홀로 남아 다음 연주에 사용할 악보를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토스카니니의 이런 끈질긴 노력은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은 자신이 연주할 부분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자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연주자들은 토스카니니를 생각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바로 모든 악보를 완전히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임시 지휘자가 되어 단상에 올라 완전히 외워 둔 악보 덕분에 지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토스카니니는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최고의 지휘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토스카니니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함께 들려드립니다. 답지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원하지 않는 목표라 하더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학생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학생입니다.〉

기회가 찾아 올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학생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다섯 번째 학생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해.

<4 번>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 좁은 양계장에서 다른 닭들만 보다가 죽습니다.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과 생존을 위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을 느끼는 정도도 다른데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5 번~6 번〉 이제 방송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 번과 6 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적이 세계 문화 유산에 동시에 등재되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구려 왕성, 왕릉, 귀족묘 등 고구려 유적 마흔세 곳과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 63 기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게 됐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유적이 함께 등재된 것은 고구려사 왜곡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한국대학교 소수림 교수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였던 오녀산성과 국내성, 그리고 광개토대왕비와 장군총 등 굵직굵직한 유적이 포함된 반면, 북한은 고분군만 선정했습니다. 이 점은 자칫하면 고구려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 역사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정권일 뿐이라고 일제히 목청을 높였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양성 등도 빠른 시일 안에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등재된 후에는 보존이 부실할 경우 언제든지 '위험 유산'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